

#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 시간이 공존하는 뉴인류를 꿈꾸다



이탈리아 건축가  
시모네 카레나

### 핫 이슈

작은 지구촌, 서울의 오늘

### 정책 카드뉴스

방문예약제 전면 실시

### 숫자로 말해요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 출입국 사람들

화성 외국인보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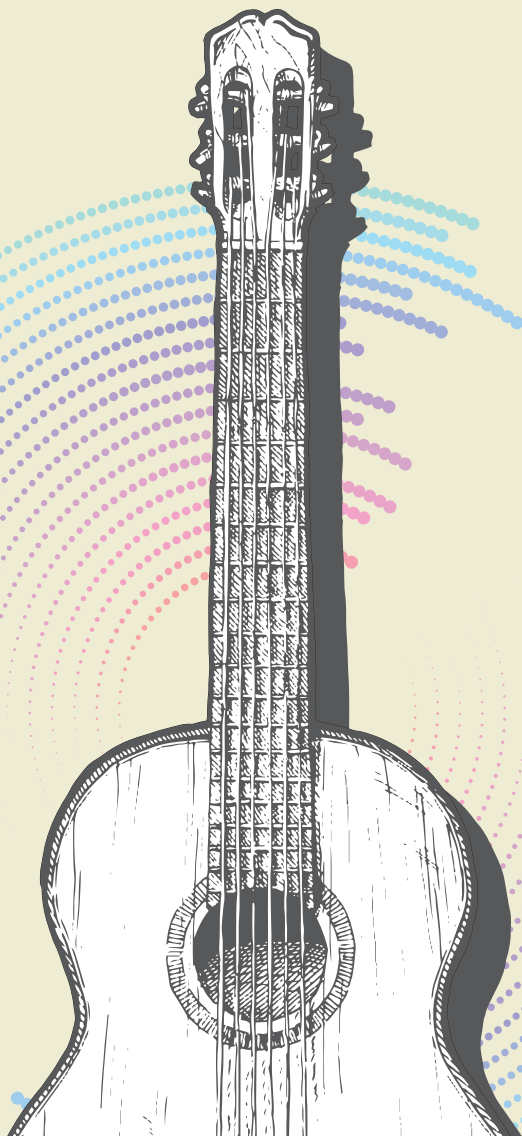


# 기타처럼 살아요

기타의 여섯 줄은 굵기도, 역할도, 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줄들이 어울려 내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음악입니다.  
여섯 줄이 서로의 소리를 받쳐주고, 감싸주고, 이끌어주는  
그들만의 질서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이 탄생합니다.

함께 어울려산다는 것이 기타 선율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사회도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길을 걸으면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마음을 잠시나마 향기로운 봄내음으로 포근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으며, 지금도 심 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감염증 관련 안내, 의료진과 외국인 간 3자통역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더욱 부족해진 농·어촌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는 등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제도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본부는 외국인정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재한외국인과 함께 경제회복 및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Dear  
readers,

The bitter winter has passed, and the warmth of spring has come—a time when the scent of flowers can be enjoyed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I hope your hearts, weary from COVID-19, will be filled to the brim by the beautiful fragrance of the season. For the past year, we have all struggled with the pandemic.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continues to work hard to bring an early end to the crisis.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is open around the clock to provide Korea's foreign residents with information on infectious disease, interpretation with medical staff and a variety of other services. We are also implementing systems to ensure our foreign residents can recover quickly from financial difficulties, for example, by allowing those resid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o be seasonally employed there. In addition to respond to the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we are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y to help restore the nation's demographic growth engine. Now that Korea is becoming more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we are committed to doing our utmost—through a broad consensus of the Korean people—to work with our foreign residents as we move forward on the path of economic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Cha, Gyu-geun

#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1 vol. 55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에이치씨(02-2269-0309)

**06** 오늘도 행복해

김알렉산더 씨가 웃었습니다



**08** 핫이슈

작은 지구촌, 서울의 오늘

**12** 한눈으로 보는 이민정책

취업 가능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 신고하세요

**14** 한국의 [M:E]

시간이 공존하는  
'뉴 한옥'을 꿈꾸다  
-시모네 카레나



## 18 정책 카드뉴스 1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 20 지구야 놀자

플라스틱 팬데믹, 슬기롭게 이겨내기



## 22 숫자로 말해요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 23 그곳이 알고 싶다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를 가다

## 24 출입국 사람들

외국인보호소는 공공외교의 현장  
화성외국인보호소



## 28 정책 카드뉴스 2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 취업 허용

## 29 공존 에티켓

나라별 이색 테이블 매너

## 32 칭찬합시다

김형욱 출입국관리주사보  
장민진 출입국관리서기

## 32 KIS NEWS

## 34 EVENT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http://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http://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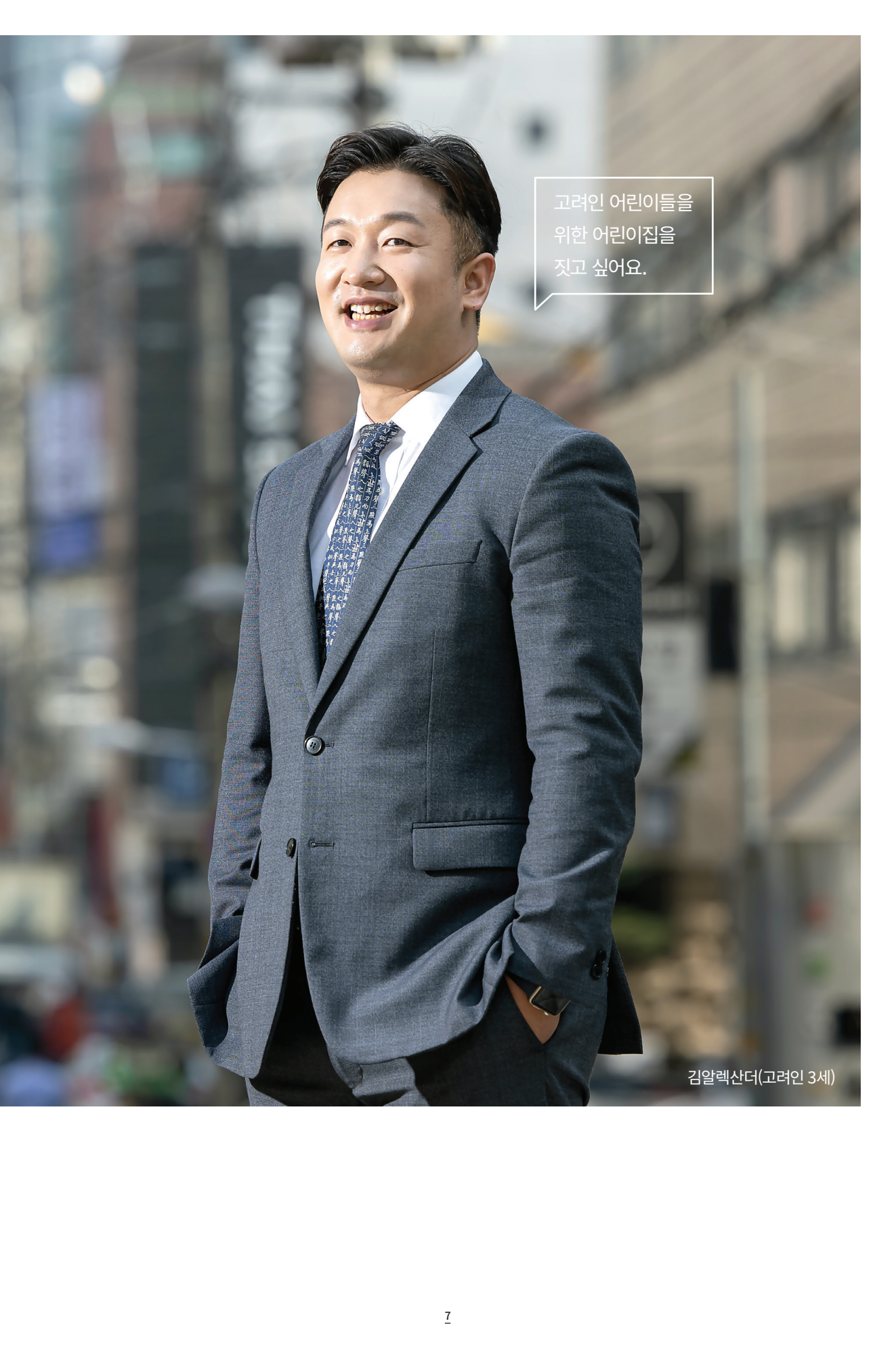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http://pf.kakao.com/_gxbpPT)

# 김알렉산더 씨가 웃었습니다

김알렉산더 씨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3세입니다. 15년 전 국내의 한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유학 비자(D-2)와 재외동포 비자(F-4)를 거쳐 2019년에는 취업과 거주가 훨씬 자유로운 영주권(F-5)을 발급 받은 김알렉산더 씨. 그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순조롭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데는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포용정책의 도움이 컸습니다. 2019년에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를 종전 3세대에서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기로 국내법이 개정되면서 김알렉산더 씨가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자녀 역시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가족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고려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며 고려인 아이들을 돌볼 그날을 그는 오늘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꿈이 실현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고려인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짓고 싶어요.

김알렉산더(고려인 3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작은  
지구촌,

# 서울의 오늘



## 동네 골목길에서 만나는 외국인 이웃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2021년 2월호에 의하면 2021년 2월 말 체류 외국인 수는 201만 명이며, 등록 외국인의 21.9%(23만 명)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일까. 굳이 경북공이나 남대문시장처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코스가 아니더라도, 중국어나 필리핀어로 대화하는 편안한 슬리퍼 차림의 외국인들 모습을 동네 어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외국인 200만 시대, 어느덧 이들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됐다.







우리에게는 조각보라는  
전통 공예가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인  
조각보는 조각조각  
다채로운 색들이  
조화롭게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서울도 다양한 문화를  
보유한 외국인 마을들이  
조각보처럼 알록달록한  
무늬를 수놓으며  
공존의 도시로 한층  
풍요로워지고 있다.

덕분에 서울의 모습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학업, 일, 결혼 등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서울을 자신의 정주지로 삼은 외국인들이 늘면서 프랑스인이 모여 사는 반포동의 서래마을, 동부이촌동의 일본인이 집단 거주하는 리틀 도쿄, 이태원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주변의 이슬람 타운 등 자연스럽게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 외국인 마을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리봉동의 조선족 연변거리, 광희동의 러시아-중앙아시아 거리 등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식료품점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형성되는가 하면, 혜화동에서는 일요일마다 필리핀인들을 위한 예배와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마을이라고 외국인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들 지역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부러 찾는 한국인들도 많다.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하며 각국의 식도락을 즐길 수 있으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따로 나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드는 공간이 늘면서 서울은 포용과 공존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 이태원, 서울 속의 글로벌

### 문화 집결지

서울의 한 자락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외국인 마을을 둘러보기에 앞서 서울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단연 이태원을 꼽을 수 있다. 1997년 서울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은 어쩌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해밀턴호텔 뒷골목의 세계음식거리를 걷노라면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이 즐비해 그야말로 글로벌 지구촌을 한 자리에 압축해 놓은 듯하다. 이곳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무색해진다. 외국인 직원에게 환대를 받으며 다양한 피부색의 외국인들 틈에서 이런저런 외국어들을 들으며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를 건너 언덕을 올라 우사단로에 이르면 낯선 음악과 향신료의 냄새가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 바로 1976년에 세워진 이슬람사원, 서울중앙성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슬람 마을이다. 거리에는 할랄 음식을 파는 식당과 슈퍼, 그리고 이슬람 경전을 판매하는 서점과 히잡을 전시한 옷가게가 들어서 있다. 터키 쉬 베이커리, 아라비아 요리 전문점, 카이로 바비큐 전문점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아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

이곳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음식점 주인도, 머리를 깎는 미용실 손님도, 집 앞에 잠깐 불일을 보러 나온 이들도 모두 외국인이다. 이들이 이 동네의 주민들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도 우리말 아래 영어와 이슬람어로 표기돼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태원



# 중앙아시아 거리

더불어 사는 공공건축을  
중시했던 정기용 건축가는  
그의 책 「서울 이야기」에서  
'서울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수백 개의 각기  
다른 동네의 집합이고 연대'  
라고 말했다



## 동대문 실크로드로 불리는 러시아·중앙아시아 거리

동대문 일대는 새롭게 조성된 신흥 외  
국인 문화의 거점지이다. 그중 러시아·  
중앙아시아 거리는 동대문 의류상가  
를 찾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  
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의 보따리상  
들이 터를 잡으며 형성된 곳이다. 이  
거리의 문자는 러시아어인 키릴 문자.  
러시아어나 중앙아시아인들이 이용  
하는 식당과 빵집, 카페, 슈퍼, 화장품  
가게의 간판들은 물론, 코로나19 검사  
를 안내하는 구청의 현수막까지 키릴  
어로 쓰여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화덕에 삼사(우즈베키스탄 전통 빵)를  
구워내는 중앙아시아 음식점들 사이에  
간간히 한국 음식점들도 보이는데 비  
빔밥, 보쌈정식 같은 한식 메뉴 안내판  
에는 어김없이 키릴 문자가 쓰여 있다.  
이 거리에 있는 오래된 10층짜리 건물,  
뉴금호타워는 일명 '몽골타워'로 통한  
다. 음식점, 위탁배송업체, 미용실, 식료  
품 가게, 휴대폰 판매점 등 대부분의 건  
물 안 상점들을 몽골인이 운영하기 때  
문이다.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동대문을 지나  
창신동으로 넘어오면 네팔 국기가 네  
팔 타운의 시작을 알린다.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창신동은 잘 알려져 있다시  
피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네  
팔 타운은 봉제 일을 하려는 이주자들  
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네팔 음악  
이 흘러나오고 네팔 공예품이 장식돼

있는 음식점에서는 때때로 네팔인들  
의 결혼식이 열리기도 한다.

더불어 사는 공공건축을 중시했던 정  
기용 건축가는 그의 책 「서울 이야기」  
에서 '서울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수  
백 개의 각기 다른 동네의 집합이고 연  
대'라고 말했다. 각기 다른 동네의 분  
화와 집합이 서울의 다채로운 지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명실상부 국제도시  
로 거듭난 서울은 이제 보다 다양한 지  
역과 문화의 이주민들을 품으며 공존  
의 의미를 나누고 있다.



# 취업 가능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 신고하세요

2020년 12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의 경우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1

외국인등록할 때

2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할 때

3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할 때

- ※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 연간 소득금액 구간

- 소득없음
- 연간 1천만원 미만
- 연간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연간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연간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연간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연간 5천만원 이상



##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의 제출서류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

- 1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2 소득금액증명원(단, 주재(D-7)은 제출 제외)

※ 단,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 징구



## 취업필수 자격 아닌 외국인의 제출서류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거주신고시에는 '직업'만 신고

- 1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2 소득금액증명원(단,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아래 대상자만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4. 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 Foreign residents allowed to work need to report their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As of December 1, 2020, foreign nationals granted a status of stay that entitles them to engage in job-seeking activities must report their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to the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ir place of st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and 49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 The form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Report Form' can be downloaded from the HiKorea website > News & Announcements > Application Form



## When should I report?

- 1 When filing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2 When applying for permission for change of status,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original status of stay, change/addition of workplace (report), permission for status of stay, permission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 3 When your occupation or annual income changes

- ※ Existing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must report any changes in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after initial report of the relevant information
- ※ Criteria for changes in annual income: When your annual income enters a different annual income bracket (see below)

### Annual income brackets

- No income
- Under KRW 10 million
- KRW 10 million to less than KRW 20 million
- KRW 20 million to less than KRW 30 million
- KRW 30 million to less than KRW 40 million
- KRW 40 million to less than KRW 50 million
- KRW 50 million or more



## Required documents for foreign residents with employment-based status

Intra-Company Transferee (D-7), Corporate/Foreign Investor (D-8), International Trade (D-9), Professorship (E-1) through Vessel Crew (E-10) status

- 1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Report Form"
- 2 Income certificate (not applicable to D-7 status)

※ An employment agreement is required instead of an income certificate for those with the status of stay other than Intra-Company Transferee (D-7), Corporate/Foreign Investor (D-8), and International Trade (D-9) and verified as generating no possible income in Korea when they file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Required documents for foreign residents with non-employment based status

Resident (F-2), Overseas Korean (F-4), Marriage Migrant (F-6), and Work and Visit (H-2) status

※ Those with Overseas Korean (F-4) visas shall report only their occupation when reporting on their abode in Korea

- 1 Report of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 2 Income certificate (ONLY THOSE EMPLOYED PERSONS BELOW)

※ Attached Tab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Immigration Act 24. Those with F-2-99, F-2-6, F-2-11, or F-2-7 visas under Resident (F-2), those with Work and Visit (H-2) visas reporting commencement of employment, and those with Marriage Migrant (F-6) visas.

# 시간이 공존하는 '뉴 한옥'을 꿈꾸다

이탈리아 건축가 시모네 카레나

아름다운 역사 건축물들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온 건축가가  
한옥과 사랑에 빠졌다. 그에게  
한옥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주거공간이 아니다. 가족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보금자리이자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타임머신 같은 공간이다.



## 첫눈에 반한 한옥

시모네 카레나 씨가 한옥에 살게 된 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멀티미디어과 교수이자 건축가로 활동하는 그는 자신의 학생이 찍어 온 삼청동 한옥마을 사진을 보고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복잡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대도시 속에 홀로 시간을 멈추고 고요하고 아늑하게 멋을 내고 있는 한옥이 그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한 것이다. 그 호기심이 발전해 그는 신혼집을 급기야 삼청동 한옥으로 정했고, 지금까지도 만족하며 살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의 즐거운 한옥살이는 KBS1 <인간극장>에 2012년과 2020년 두 차례나 소개되어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 ‘레게의 전설’ 밥 말리를 찾아 자메이카로

그가 한국에 살기 시작한 건 2000년 무렵이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탈리아 뮤지션의 뮤직비디오 제작한 일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지금의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의 학장님을 만나 교수직을 제안받았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디자인학과 여름학교, 남캘리포니아 건축전문대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 유명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그가 건축을 공부한 나라 중에는 자메이카도 있다.



## 그에게 한옥은 이미 특별한 공간으로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다

“자메이카에 간 건 순전히 레게 뮤지션 밥 말리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밥 말리를 너무 좋아해 어른이 되면 꼭 밥 말리의 나라인 자메이카에 가서 그의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대학생이 된 후 교환학생 형식으로 자메이카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냉큼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서울의 한 콘서트장에서였다. 서울에서 대학원 교수와 건축가로 활동하던 그와 패션을 공부하던 아내는 그녀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한국에 사는 이탈리아 남자와 이탈리아에서 머무는 한국 여자의 장거리 연애는 1년 반 뒤에 그녀가 귀국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 세상에서 하나뿐인 ‘뉴 한옥’ 만들기

삼청동 한옥을 신혼집으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주변 한국 친구들은 그를 말렸다. 편의성이나 투자 목적 등에서 아파트가 더 낫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한옥은 이미 경험해보고 싶은 특별한 공간으로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다.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서히 진화해온 한국 건축의 결정체, 한옥. 그가 한옥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내 역시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그가 작업에 참여한 한강예술공원에 설치된 작품 '스크롤'이다. 한강의 흐름 속 무한한 심을 상징한다는 이 조형물은 90미터 길이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은 삶과 같다.  
고치면서  
발전하면 된다

그는 오래되고 ‘원시적’이면서도 현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재해석된 한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2006년 한옥을 구입했다. 그보다 앞서 한옥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대부분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구 등 내부 소품들을 바꾸는 소극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가 재해석한 ‘뉴 한옥’은 전통 한옥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 한옥에는 없는 테라스 공간을 만들고, 현대식 화장실을 꾸몄으며, 나무 색과 흰색이 주로 쓰이는 한옥의 색상예 대나무 잎 색깔 같은 새로운 색상을 더해 모던한 한옥을 탄생시킨 것이다.

또한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도 주안점을 뒀다. 아내와 둘이 살 때는 두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꾸몄고, 세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다섯 식구가 가장 생활하기 좋도록 그들의 동선과 생활 패턴,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들만이 보금자리를 만들어갔다. 그는 언젠가 필요에 따라 집의 모습을 바꿀 수 있게 공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고 고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조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건축은 삶과 같다.

그래서 건축에서도 언젠게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고치면서 발전하면 되는 것이다.

육아는  
즐거운 의무이자  
행복한 권리

**자상한 아빠와 유능한 건축가 사이**

그의 세 아들 페리체, 포르테, 페르모는 요즘 한창 공금한 것도 많고, 뛰어나기 좋아하고, 때론 귀여운 사고(?)도 칠 나이다. 그래서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했을 아내를 위해서라도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달려온다. 그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육아는 그에게 즐거운 의무이자 행복한 권리이다.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놀이와 공부를 연결시켜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행기 모형 장난감을 만들거나 빵을 굽는 놀이를 통해 기하학과 수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방식이다.

집 밖을 나서면 그는 유능한 건축가이자 교수로 변신한다. 그는 경기 안양시 안양예술공원과 파주시 헤이리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2017년에는 이탈리아와 한국 관계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작위를 수여 받기도 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은 2018년 한강예술공원에 설치한 ‘스크롤’이다. 한강의 흐름 속 무한한 심을 상징한다는 이 조형물은 90미터 길이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오는 9월 열리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국제 큐레이터로 임명된 것이다. 이메일로 전해온 근황이었지만, 그의 설렘과 기대가 메일 내용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진심으로 응원해본다.



예약하면 편리해요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사, 4.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 ☑ 방문예약제를 아시나요?



민원인이 관할출입국·외국인관사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방문 일자과 시간대를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문예약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청), 대전·춘천·창원·여수·전주(사무소), 김해·통영·사천·거제·광양·구미·포항·동해·속초·서산·당진·군산·목포(출장소)

### ☑ 방문예약제가 왜 좋을까요?



방문 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람과 한 공간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 코로나19 등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예약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 관련 민원 업무 시 방문예약을 하고 관할출입국·외국인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및 휴대폰 등 모바일(검색어 : 하이코리아)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며, 방문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하루 전에는 예약해야 합니다.

Greater visitor experience

# Online appointment booking Offered by all immigration offices from 1 April

## ☑ What is online appointment booking system?



This system allows visitors to pick out a specific appointment date/time slot online prior to paying a visit to an immigration office in his/her jurisdiction. This system was only offered by 15 immigration offices, but 19 additional immigration offices\* will start to offer this system from 1 April to cover all immigration offices nationwide.

\* Jeju, Daejeon, Chuncheon, Changwon, Yeosu, Jeonju, Gimhae, Tongyeong, Sacheon, Geoje, Gwangyang, Gumi, Pohang, Donghae, Sokcho, Seosan, Dangjin, Gunsan, Mokpo immigration offices

## ☑ How can I benefit from the system?



It eliminates the hassle of long wait times, snaking lines, being packed in clogged waiting rooms, which help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 ☑ How can I make an online appoin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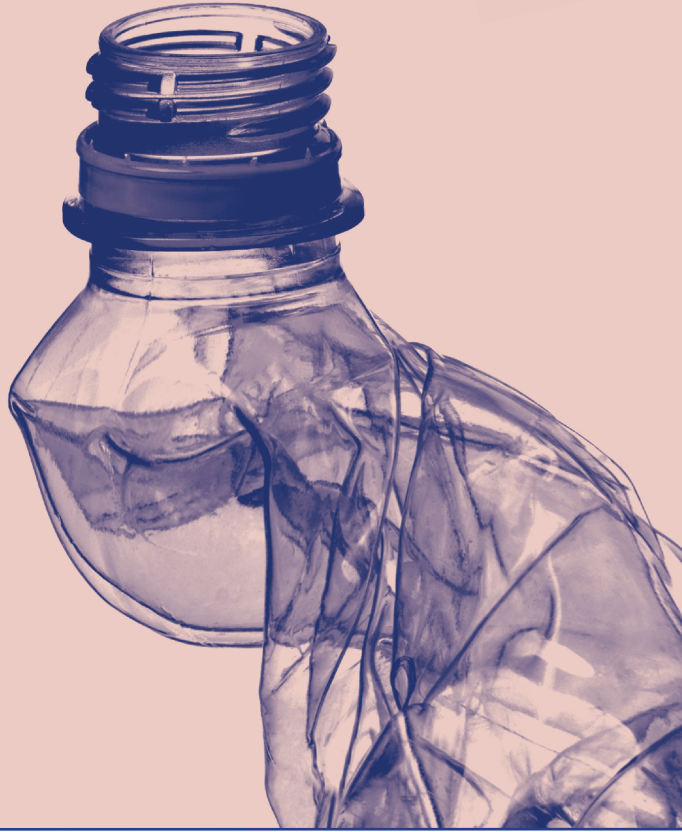
Please visit Hi Korea website at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via your computer or mobile device by entering Hi Korea into your search engine to receive the service you need, such as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and extension of your period of stay to name a few.

Member registration is not needed to make an online appointment and you are recommended to make a booking at least 24 hours ahead of your desired date of visit.

# 플라스틱 팬데믹,

# 슬기롭게 이겨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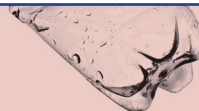
사용할 땐 참 편하다.  
그런데 처리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 천덕꾸러기, 플라스틱

‘아무 모양이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한 플라스틱.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쉬울 뿐 아니라 튼튼하고 가벼워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까지 받았던 플라스틱이 요즘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사용 후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태우면 독성물질을 내뿜고 땅에 묻으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킨다. 코로나19는 플라스틱 사용량의 폭증을 낳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택배와 배달포장 음식 주문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일회용 마스크도 주재료인 부직포가 플라스틱 덩어리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 이 또한 플라스틱 문제를 가중시킨다.

과연 우리는 플라스틱을 얼마나 쓸까.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페트병 및 플라스틱컵,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평균 11.5kg이다. 2019년에 발표한 자료인 만큼 코로나 이후 사용량이 그보다 훨씬 증가했으리란 건 쉽게 짐작 가능하다.



# PLASTIC PAN-DEMIC

플라스틱 쓰레기의 직격탄을 맞은 건 우선 바다생물이다. 뱃속에서 폐비닐과 그물 등이 발견된 거북이와 콧구멍에 빨대가 박힌 채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거북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우리 눈앞까지 왔음을 알린다.

미세플라스틱도 문제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1mm 미만의 매우 작은 형태로도 존재한다. 화장품, 치약, 클렌저 등의 일상 제품이나 바다를 떠다니는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등이 자외선과 파도 등에 잘게 부서지면서 생긴다.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에 의해 결국 인간이 먹게 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소화기관에 손상을 줄 뿐 아니라 장기간 농축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흙 속에서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좋은 대체 재료로 각광 받고 있다.

친환경 플라스틱의 상용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슬기로운 TIP



### 천연제품 쓰기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일반 세제나 수세미 대신 친환경 세제와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세요.



### 고체제품을 이용하기

플라스틱 용기에 든 액상샴푸, 액상 비누 대신 고체샴푸, 고체비누를 사용하면 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 개인 텀블러와 빨대

개인용 스테인리스 빨대와 텀블러의 생활화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 리필용 제품의 생활화

플라스틱에 담긴 새 제품 대신 리필용 제품을 사용하면 비용도 아끼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일 수 있어요.



### 대용량 제품 쓰기

랩이나 비닐, 스티로폼 등으로 개별 포장된 제품 대신 대용량 제품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세요.



### 배달주문 시 체크하기

음식배달 주문시 플라스틱 수저, 플라스틱 포크, 빨대 등 불필요한 일회용품은 빼고 보내달라고 말씀하세요.



### 장바구니 자람하기

장 보러 갈 때 개인 장바구니를 가져가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 물티슈 자제하기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포함돼 있어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므로, 되도록 행주나 걸레를 쓰세요.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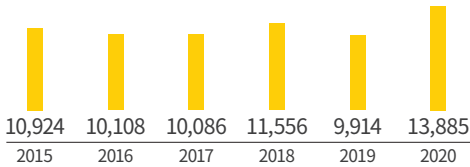
#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인구 현황을 숫자로 알아본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 국적귀화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귀화. 2015~2020년까지 거의 매년 1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로 귀화했다.



배우자가 한국사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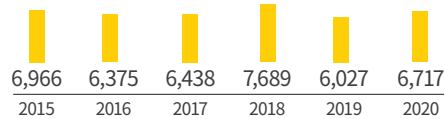
## 혼인귀화자

귀화 사유는 많지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혼인으로 인한 귀화가 가장 눈에 띈다.



2020년 전체 귀화자 중 혼인귀화자가 무려

43.37%



잠시 나갔다가 왔습니다

## 국적회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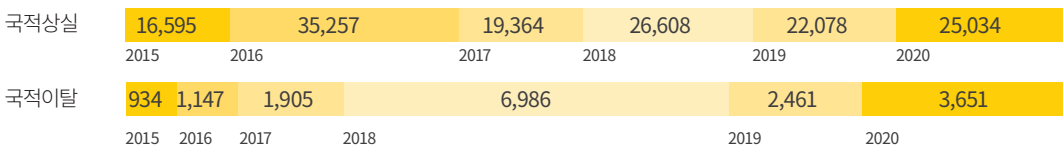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감사했습니다

## 국적이탈·상실자

반대로 국적이탈과 국적상실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단위: 명)

정주민-이주민의 상생을 추구하는

#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를 가다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는 단순히 언어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지 않는다. 이들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는 한국인과 이민자가 단순한 공존을 넘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2008년에 문을 연 다문화연구소가 집중하는 분야는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이다. 언어는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까닭에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의 빠른 정착을 돕고 있다. 2012년과 2016년부터는 각각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 상호문화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발현

다른 하나는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 동화주의는 문화다양성을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의이고,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주의인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주민은 이민자를 환대하고, 이민자는 사회에 통합되려고 노력하며, 정주민과 이민자가 함께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로 상호문화주의다.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장한업 소장은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후발 이민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전통 이민국가인 영미권보다는 선발 이민국가인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은 여기가 유일하다.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연구소는 최근 3년 사이 법무부,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서울시청, 구로구청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상호문화교육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 두 프로그램의 융합 통한 상승효과 기대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는 앞으로 한국어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을 연결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장한업 소장은 “한국어교육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는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경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어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의 결합을 통해 이민자들과 소통한다면 이들의 적응과 정착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화다양성 인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외국인보호소는 공공외교의 현장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세심한 마음으로 살피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출국 전 ‘보호하는  
장소’이지만, 보호 대상이나  
업무 특성상 ‘공공외교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2000년 서울외국인보호소가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면서 개칭한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의 무사 귀환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각 3층 구조의 관리동과 보호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보호동은 최대 500명의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다. 주로 수도권 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보호 외국인을 인계받지만, 전국 3개의 보호소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타 사무소·보호소의 수용인원이 한계치에 이르면 지역 제한 없이 보호 의뢰를 받는다. 지금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간 외국인인 19만 명에 이른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길강목 소장은 “외국인보호소는 단지 퇴거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공공외교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가능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대일 고충담당제로**

**보호 외국인 고충 해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세심한 마음으로 살피고 있다. 사실 강제 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이 보호소에 입소하면 언어 및 문화적 장벽, 각종 신변 문제로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평균 6.8일(코로나19 이후 30일) 정도 보호소에 머무는데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생필품이나 의약품 제공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동감 프로그램’이라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길강목 소장은 “비록 단기간 머무는 것이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귀국을 앞두고 겪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운동)과 종교활동(불교·기독교·천주교·이슬람교 예배), 다도 및 한국어 교육, 국악 공연, 이마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배실과 공연장이 마련돼 있으며, 기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서관과 컴퓨터실도 운영한다.





한편, 보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잔여 자산 처분, 근로 및 임대계약 등 각종 계약 문제와 신변 정리, 여권(여행증) 마련, 항공권 구입 등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보호 외국인이 입소하면 심리상담과 고충담당관의 일대일 밀착상담을 통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부터 파악한다.

보호소에 입소한 외국인들은 저마다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중 지난해 5월에 입소한 몽골 국적의 한 외국인은 생계가 막막한 한 살배기 쌍둥이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급히 해당 지역 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보호기관 등에 연락해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하고 주한몽골대사관과 협의해 항공권을 확보, 자녀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한 번은 카메룬 국적의 한 외국인이 결핵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보호소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금 활동을 펼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적도 있다.

### 감성 충전소, 소소카페

보호 외국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직원들을 보며 떠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건네주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 그럴 때면 비록 언어와 국적은 달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했음에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길강묵 소장은 “보호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감성과 지성을 북돋워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운 요즘은 수용인원이 늘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을 14일간 격리 보호하며 격리 해제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며, 이동식 열화상 카메라로 매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관리동 2층에 마련된 '소소카페(웃음이 넘치는 카페)'는 직원들의 감성지수를 높여주는 재충전의 공간이다.

관리동 2층에 마련된 '소소카페(웃음이 넘치는 카페)'는 직원들의 감성지수를 높여주는 재충전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재능기부로 기증된 직원들의 그림과 시가 전시돼 있어 이를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다. 또한 4월부터 직원 자율적으로 뮤지컬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곧 랜선 음악회도 열 계획이다.

### 코로나19 방역 이상 무!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호 외국인의 안전한 귀국을 책임져야 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 보호 외국인 및 보호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 이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외부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호 외국인을 14일간 격리 보호하며 격리 해제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실로 이동시키고 이동식 열화상 카메라로 매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매주 3회 청사 소독 및 방

### Interview

#### “좋은 기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길”



화성외국인보호소 **김강묵** 소장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출입국 관리직을 비롯한 공무원 126명과 민간인 신분인 공무원 등 84명, 총 210명의 직원이 혼연일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국을 앞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현장으로서 보다 전문화된 보호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호 직원들의 외국인을 상대하는 기술과 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우고, 감정·정서적 포용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공공외교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을, 월 1회 외부업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집단감염을 막아야 하는 보호소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직원과 외부인에 의한 감염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일 2회 체온 측정 및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외부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체크, 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김강묵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교차감염의 위험을 차단해 보호 외국인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문 보호기관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전했다.

농어민도 웃고, 외국인도 즐거운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 취업 허용



## 제도 시행 목적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내 체류 중이거나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의 일손 부족도 해결



## 신청 대상

- ①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 ② 미안마 정세 불안을 사유로 기타(G-1) 체류 자격을 받은 미안마인
- ③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 ④ 코로나19 사유로 '출국기한유예' 또는 '출국기한연장' 중인 외국인



## 근로 혜택

90일 이상 계절근로에 종사한 동포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통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계절근로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및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재입국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 제공



## 근로 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요시 숙식 제공도 가능



## 근로 기간

농·어업 분야에서 **2021.3.2.**부터 **2022.3.31.**까지 최장 13개월

로마에 가면 로마의 식사법을 따라야

# 나라별 이색 테이블 매너

지리적으로 가깝더라도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만큼  
나라마다 생활 양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테이블 매너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베트남

##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여행을 갔다면 그 나라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전쟁이 대표적이다. 평상시는 물론이고, 식사할 때는 더더욱 그들의 아픈 역사를 꺼내지 말자. 또한 식사할 때 자신이 먹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 밥그릇에 얹어주는 것은 친절의 표시이니 오해하지 말 것. 또한 청잔 문화가 있어 상대방의 잔을 수시로 채워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중국

## 맛있을수록 남기세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손가락을 얹어 놓는 것이 예의다. 밥그릇을 얹어놓는 것은 병이 나서 탕약을 먹은 후 얹는 것을 연상시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젓가락 길이가 다른 것은 불길한 의미로 여겨 젓가락 짝을 잘 맞추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 대접을 받았다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의미로 음식을 약간 남기는 것이 좋다.



일본

## 젓가락으로 이건 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식사할 때는 꼭 피해야 할 행동이 있다. 먼 곳에 있는 음식을 상대방과 젓가락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시체를 화장하고 난 후 남은 뼈를 주워 담을 때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건넸다. 이런 풍속 때문에 식사 중에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네는 행위는 화장터에서의 행위를 연상시켜 결례가 된다.



태국

## 포크로 찍어 먹지 말라고요?

태국에서는 포크 사용을 주의하면 좋다. 이곳에서는 포크로 찍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포크는 단순히 음식을 찍어서 옮기는 이동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포크로 찍은 음식은 수저에 얹어 먹는 것이 예의다. 또한 그릇 위에 젓가락을 올려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이 역시 피해야 한다.

# 칭찬합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 중 제 실수로 여권이 심사대 데스크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는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입국 담당 직원분들이 오셔서 제 여권을 꺼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형욱 계장님께서 여권을 찾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결국 여권을 찾아주셨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 중에서

칭찬 주인공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 심사5과  
김형욱 출입국관리주사보

## Q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전용심사대에서 출입국 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심사대는 외교관, 승무원,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심사대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결국 여권을 찾아주셨습니다.

## Q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체류업무를 할 때 국민의 배우자인 일본인께서 남편 실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저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민의 배우자가 취업하려면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민원인 역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 Q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민원인과 직원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원하는 부분을 처리해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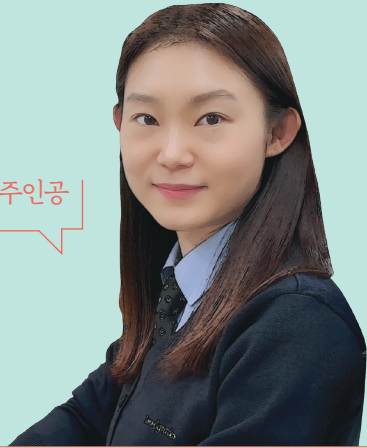
##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업무는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태국인 근로자와 근무처 변경 건을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해당 서류와 관련된 기관의 처리가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마감시간이 다 되어 불안한 마음에 장민진 님에게 당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힘들지요’라며 미소지으시는데 그 순간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도가 되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 중에서

칭찬 주인공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장민진 출입국관리서기

❶ 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❶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 때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힘들지요

❷ 민원인을 대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❶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출근할 때 또는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말을 떠올리며 언제나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려고 합니다.

❸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❶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민원인을 도와드렸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언젠가 청각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체류허가 신청을 심사한 적이 있는데, 타 기관에서 일을 처리해야 해 그 기관의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할 내용들을 민원인을 통해 글로 써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글과 수화를 섞어가며 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❹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❶ 업무와 관련해 깊이 있는 지식과 유연한 사고를 겸비하여 제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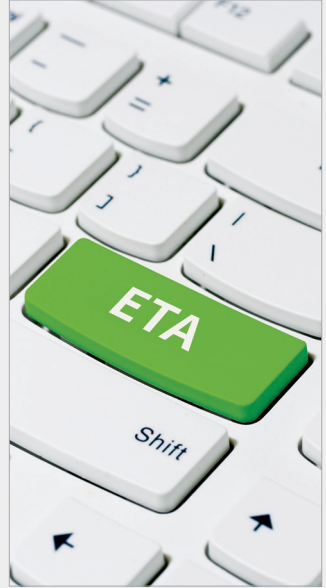
2021 vol. 55

## 체류 기간 부여,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ex. 규정상 2년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유효 기간이 6개월만 남았으며 6개월만 체류기간연장)된다. 그동안은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그로 인해 여권이 만료돼도 재발급하지 않거나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인의 사례가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해 행정상 여권 정보가 상이해 정확한 출입국체류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 여권 변경 신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가 줄고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체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는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K-ETA 5월부터 시범 운영



법무부가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ETA 제도는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을 허가받는 제도이다. ETA 제도가 시행되면 선량한 외국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탐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질환 발생 시 입국 외국인의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ETA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본인 메일로 ETA 허가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본 제도는 오는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료(www.giro.or.kr)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드 사용으로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이 편해지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도 최소화할 수 있어 전자 양산 방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입국허가  
PCR 제출 의무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오고 있다. 그전까지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하면 됐다.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된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면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만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다. 이 제도로 출국명령 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에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VENT

# 공존

함께한다는 뜻이기에,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공존> 봄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소중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1. 5. 1. ~ 5. 21.

## 참여 방법

-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경품

의견을 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해  
파리바게뜨 교환권  
(2만 원)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2021년 5월 28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당신이 더욱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Already, We're ready



# Korea ETA

##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21년 5월부터 시행

### 대상국가

112개국(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상국가는 홈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www.k-eta.go.kr](http://www.k-eta.go.kr) 접속  
(PC 및 모바일앱)

###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 수수료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  
- 시험운영 기간('21. 5월 ~ 8월)에는 수수료 면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